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김 현 아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자녀 애착과 개인 내적 요인인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성인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을 예측하는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학생 156명이 참여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아버지-자녀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이에 더해 반응속도경쟁게임(Competitive Reaction Time)을 사용해 공격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시도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고 아버지-자녀 애착이 낮을수록 자녀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많이 보였으며, 이는 자녀의 높은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어머니-자녀 애착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서조절곤란 및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이론적, 임상적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버지, 심리적 통제,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

* 이 논문은 김현아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 (Bushman & Anderson, 2001),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은 남을 때리거나 밀치고 위협하는 등 주로 신체적으로 표출되는 외적인 공격 행동을 지칭한다(Prinstein, Boergers, & Vernberg, 2001). 반면,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사회적인 활동에서 공격대상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등 대인관계를 이용해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다 (Archer & Coyne, 2005). 공격성은 타인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외상을 야기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 또한 우울(Yen et al., 2010)이나 물질사용장애(Fite, Colder, Lochman, & Wells, 2007) 등 여러 정신 장애와도 관련이 있어 개인의 건강한 적응에도 위해가 된다. 따라서 공격성의 예방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격성을 예측하는 요인과 그 기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격성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이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성인의 공격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 요인들 중, 경제적 빈곤(Tremblay et al., 2004), 폭력적인 미디어 콘텐츠(Wood, Wong, & Chachere, 1991), 부모의 양육행동(Loeber & Hay, 1997) 등

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또한 개인 내적 요인도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까다로운 기질(Vitaro, Barker, Boivin, Brendgen, & Tremblay, 2006), 낮은 지능(Loeber & Hay, 1997), 정서조절(Sullivan, Helms, Kliewer, & Goodman, 2010)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애착, 그리고 개인 내적 요인 중 정서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요인이 각각, 또 함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크게 돌봄 및 애정 등으로 대표되는 온정적 양육(warmth/support)과 처벌, 복종 및 순응의 강조 등을 포함하는 통제적 양육(control)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Barber, 2002).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높은 자존감, 높은 성취 및 동기 등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되는 반면(Grolnick & Gurland, 2002), 통제적 양육은 낮은 자발성, 낮은 사회적 유능감, 높은 타인 의존성 등 자녀의 부정적인 발달을 예측하며(Grolnick & Gurland, 2002), 특히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높다(Nelson, Yang, Coyne, Olsen, & Hart., 2013). 통제적 양육은 그 형태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동적 통제와(Manzeske & Stright, 2009) 자녀와의 관계를 담보로 하여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심리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Manzeske & Stright, 2009; Nelson & Crick, 2002). 양육의 통제적 측면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행동적 통제를 주로 다뤘으며(Hecker, Hermenau, Isele, & Elbert, 2014; Ma, Han, Grogan-Kaylor, Delva, & Castillo, 2012),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부모가 자녀의 행

중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이나 물리적 거리 등이 필수적인 행동적 통제에 비해 심리적 통제 수단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Manzeske & Stright, 2009).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는 선행 문헌에서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 성인기까지 확장하여 그 영향을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보일수록 자녀가 보이는 공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 이러한 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Nelson & Crick, 2002), 이는 자녀의 관계적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 모두 대인관계 맥락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므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자녀가 모델링하여 또래관계 등의 맥락에서 그와 유사한 관계적 공격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Nelson & Crick, 2002).

그러나 흥미롭게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관계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외현적 공격성 또한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은 공격성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가 모델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찰학습 외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다른 경로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부모 연구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연

구 흐름은 부모-자녀 애착이며, 이 또한 자녀의 공격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oodhouse, Dykas & Cassidy, 2009). 애착이란 특정인에게 가지게 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으로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Gallarín & Alonso-Arbiol, 2012).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주변 세계를 믿을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4). 반면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주변 세계를 믿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Buist et al., 2004). 그 결과, 타인과의 관계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며,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하는 등 공격 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아진다(Simons, Paternite, & Shore, 2001). 애착이론과 일관되게 경험연구에서도 부모-자녀 간 애착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uist et al., 2004; Woodhouse et al., 2009).

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뒤,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며(Waters, Merrick, Treboux, Crowell, & Albersheim, 2000),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Bowlby(1982)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르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개인에게 내면화되어 이후 일상적인 경험들을 기대하고 해석할 때에 활성화되며, 대인관계의 청사진이 된다(Gallarín & Alonso-Arbiol, 2012). 그 결과,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이 개인에게 장기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애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나, 일부 연

구들에서 부모 애착이 성인 자녀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지되었다. Laible, Carlo 와 Roesch(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애착은 성별에 관계없이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 외에 동성 및 이성친구 등 다양한 대상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대학생과 같이 또래의 영향이 커지고 부모의 영향력이 이전 연령에 비하여 작아질 수 있는 시기에도 부모와의 애착은 계속해서 자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자녀 애착은 본래 목적인 생존(Ainsworth, 1989) 외에도 다른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성인 자녀와 부모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Kenny & Sirin, 2006; Laible et al., 2004; Love & Murdock, 2012), 한 개인으로서의 존재 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이미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어린 시절에 측정된 부모-자녀 애착이 20년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Waters et al., 2000), 어린 시절 측정된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성인 이후의 범죄 기록과 유의한 관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cCord, 1991).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자녀의 공격성에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한 탐구는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기존의 부모 애착 연구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적응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증상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자녀의 공격성과 부모 애착 간의 유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Woodhouse, Dykas & Cassidy, 2009) 성인 자녀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 애착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성인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양육행동, 애착 등의 부모 요인 연구는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간과되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진다(Goodman et al., 2011; Khaleque & Rohner, 2002). 그러나 소수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중요하며,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llarín & Alonso-Arbiol, 2012; Lamb, 2000). 또한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버지-자녀 애착은 어머니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독립성이나 자기주장과 같은 도구적인 행동을 강조하고(Power & Shanks, 1989), 돌봄 활동이 두드러지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주로 놀이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자녀와 애착을 형성한다(Dumont & Paquette, 2013; Paquette, 2004). 놀이 활동에서도 아버지의 놀이는 어머니보다 신체적으로 더 자극적이고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Lewis & Lamb, 2003). 이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대면하는 관계 맥락의 특성이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면, Chang, Schwartz, Dodge와 McBride-Chang(2003)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녀를 때리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할 때에만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그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 또한 유의하였다. 또한 Bronte-Tinkew, Moore와 Carrano (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비행행동과 물질사용 위험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비행행동 및 물질사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된 후에도 유의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과 그 기제가 어머니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자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영향과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반하여(Power & Shanks, 1989),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의해 강조되고 길러지는 측면이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자녀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박탈하여 정서조절과 같은 심리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통제받고 있다는 지각은 자신을 통제하는 상대방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투사적인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Ryan & Grolnick, 1986), 개인에게 가장 일차적인 관계인 가족 내에서부터 이러한

패턴이 안정화된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쉽게 적대감을 느끼고 공격성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처벌과 같이 자녀를 신체적으로 통제하는 훈육 방식이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Power & Shanks, 1989),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애착 형성과 놀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달리 신체적으로 자극적이고 활동적인 아버지의 놀이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조절 및 정서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체적 놀이과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보다 물리적 힘에 있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녀의 반응에 따라 '자녀를 용인해주는 역할'과 '자녀를 제압하는 역할'을 적절히 번갈아가며 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녀는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정서를 표출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통제 하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고 아버지의 규칙과 힘에 복종하게 된다(Paquette, 2004). 이처럼 아버지와의 놀이는 애착 형성의 장면일 뿐만 아니라 행동 및 정서조절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바람직하고 충분한 놀이 경험을 갖지 못한 자녀는 아버지와의 애착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응적인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으며, 나아가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양육행동 및 애착은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맥락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에 통계적인 상관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다(Rinaldi & Howe, 2012). 따라서 자녀의 공격성에 대한 아버지의 독특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력을 함께 측정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 부모 연구의 또 다른 제한점 중 하나는 공존하는 부모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애착 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Chang et al., 2003; Cui, Morris, Criss, Houlberg, & Silk, 2014).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행동과 애착이 동시에 존재하며, 오히려 서로를 맥락으로 하여 각 요인의 효과가 결정되기도 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그러므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여러 단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장점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외적으로 Bronte-Tinkew 등(2006)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자녀의 공격성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자녀의 애착이 강한 맥락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여러 부모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자녀 애착의 기본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애착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고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Love & Murdock, 2012; Waters et al., 2000), 양육행동으로 분류되는 심리적 통제는 상대적으로 가변성이 있으며, 자녀의 인지발달이 일정 수준 이루어진 시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높은 심리적 통제를 보이더라도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높은 애착 수준을 형성해 왔다면, 향후 심리적 통제의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버지-자녀 애착의 수준이 조절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향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자녀의 공격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환경적 요인인 부모가 자녀의 행동 변화와 관련이 된다면, 이는 자녀의 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가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격성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개인 내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Loeber & Hay, 1997), 부모 요인은 자녀의 심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격성에 기여한다는 경로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Chang et al., 2003; McKenzie & Casselman, 2015). 개인 내적 요인 중에서도 정서조절이 공격성과 특히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llivan et al., 2010).

정서조절이란 정서와 관련된 사회적 적응 또는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내부의 감정이나 주의 상태, 또는 행동 등을 조절하는 과정이다(Eisenberg & Spinrad, 2004). 정서조절 능력은 개인의 정신건강의 여러 측면과 맞닿아 있는데(Roberton, Daffern, & Bucks, 2012) 특히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개인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Marsee & Frick, 2007). Roberton 등(2012)은 두 가지 경로로 그 기제를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 정서나 그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을 참지 못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억제한

결과, 정신적 각성 상태가 심화되어 공격행동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서조절의 발달에는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 요인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심리적 통제와 애착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Manzeske & Stright, 2009; Gilliom, Shaw, Beck, Schonberg, & Lukon, 2002).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조절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연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Manzeske & Stright, 2009; Moilanen, 2007). 그 결과 자녀는 효과적인 정서조절능력을 발달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정서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성과 같은 충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Marsee & Frick, 2007).

부모-자녀 애착 또한 자녀의 정서조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반복해서 지지되었다(Gilliom et al., 2002; Chang et al., 2003). 애착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자녀가 보이는 정서적 단서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Bowlby, 1982; Cassidy, 1994).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기 보다는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견디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지각, 조절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 또는 가장(masking)하거나, 반대로 애착 대상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지

나치게 많이 표현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을 익히게 된다(Cassidy, 1994).

종합하자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Nelson et al., 2013; Woodhouse et al., 2009), 이 과정은 자녀의 정서조절을 기제로 할 수 있다(Manzeske & Stright, 2009; Gilliom et al., 2002; Marsee & Frick, 2007).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부모 요인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은 드물고, 특히 아버지 요인을 살펴보거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효과를 통제 후,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상호작용하여 대학생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은 각각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할 것이다. 즉 아버지가 높은 심리적 통제를 보이거나 아버지-자녀 애착이 낮을수록 자녀는 높은 정서조절곤란을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는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자녀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다. 반대로, 아버지-자녀 애착이 낮으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세 번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심리학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161명(남성 83명, 여성 7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외국인 응답자 3명과 아버지와 어머니 자료 중 한 가지가 누락된 한 부모 가정인 응답자 1명을 제외하고 총 15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표본은 남성 81명(51.9%), 여성 75명(48.1%)이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8세(SD=2.27)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연구 참가에 서면으로 동의한 참가자들에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때 질문지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CS-YSR), 부모-자녀 애착 척도(IPPA-R), 자녀의 정서조절 척도(DERS), 공격성 척도(SRASBM)가 포함되었다. 질문지 작성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공격성 과제를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

Barber(199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PCS-YSR은 총 16문항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해 자녀가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대해 평정할 수 있다(예: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덜 다정하게 대하신다”). 각 문항은 1점에서 3점까지 3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는 아버지의 경우 .80, 어머니의 경우 .85이었다.

부모-자녀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Armsden과 Greenberg(198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IPPA-R은 총 25문항으로, 어머니 애착, 아버지 애착, 또래 애착에 관해 자녀가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예: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을 제외하고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각 25문항)만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5점 척도로 작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아버지의 경우 .94, 어머니의 경우 .9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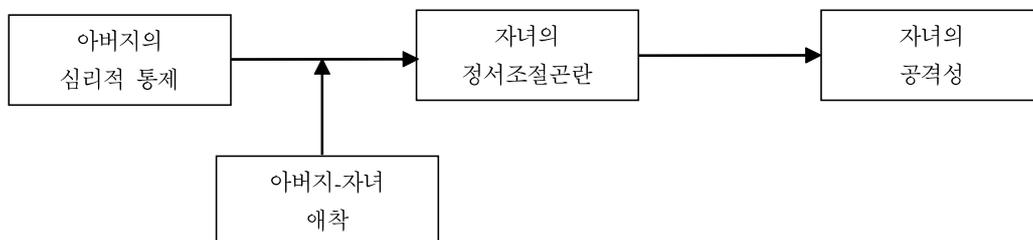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서조절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하고 조용래(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척도로 35문항만이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의 36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DERS는 6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서적 반응의 의식 부족, 정서적 반응의 명료성 부족, 정서적 반응의 비수용성, 효과적인 정서조절전략에의 제한된 접근, 충동 통제의 어려움, 목표지향적 행동의 어려움),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였다.

자기보고식 공격성 척도(Self-Report of Aggression and Behavior Measure: SRASBM)

질문지를 통해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Morales와 Crick(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SRASBM은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피해 경험, 배타성, 친사회적 행동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격성 문항들은 주도적 공격성 문항과 반응적 공격성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척도는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관계적 공격성 11문항, 신체적 공격성 6문항만을 추려내어 총 17개의 공격성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였다.

공격성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Competitive Reaction Time: CRT)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로 측정한 공격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편향된 응답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Taylor(1967)가 고안한 반응속도 경쟁게임(Competitive Reaction Time: CRT)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정하여 만든 게임 과제를 사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였다(Bushman & Baumeister, 199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CRT R&P 3.4.2 version(Bushman & Sauls, 2006)이었다.

이 과제에서 참가자는 신호가 주어졌을 때 게임 속의 상대방보다 버튼을 더 빨리 눌러야 이긴다는 지시를 받게 된다. 총 25번의 게임이 연속해서 진행되는데, 매 시합 전에는 상대방이 게임에 졌을 때 듣게 될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소음의 강도는 level 1(55dB)부터 level 10(100dB)까지 총 10단계로 구성되며, level이 한 단계씩 상승할 때마다 소음은 5dB씩 커진다. 이와 유사하게 소음의 지속시간도 0초부터 5초까지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한 단계씩 높아질 때마다 소음이 0.5초씩 더 지속된다. 게임에 앞서 참가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으며,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실제 소음의 크기를 들어본 뒤 게임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 게임의 승패는 실험자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참가자와 경쟁하는 상대방 역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다. 아울러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승률이 적용되는데(총 25게임 중 12번 승, 13번 패), 이 때 첫 번째 게임은 모든 참가자가 지도록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듣게 되는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 역시 실험자에 의해 미리 설정되어 있다.

본 과제에서 참가자가 설정하는 소음 강도와 지속시간이 공격성을 의미하며, 소음 강도와 지속시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공격성 점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Carnagey & Anderson, 2005; Lindsay & Anderson, 2000) 참가자들이 매 시행마다 보고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곱한 뒤, 총 횟수(25번)로 나눈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소음 강도 및 지속시간 모두 .97이었다.

자료분석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을 사용하여 모든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을 알아보았다. 이후 본 분석에서는 Mplus version 6(Muthén & Muthén, 2010)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 때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공격성을 예측하는 과정을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된 조절 모형(mediated moderation model)을 분석하였다.

매개분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는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 접근은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Shrout & Bolger, 2002)라는 비판을 받으며, 간접효과를 직접 계산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Preacher & Hayes,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전통적인 매개분석에 비해 통계적 검증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MacKinnon,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2002)의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

의하지 않아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다면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매개효과 분포가 정상분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분석으로, 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검증력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Preacher & Hayes, 2008).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 표본 수를 5,000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95%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한편 상관분석 결과,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된 공격성과 CRT 과제로 측정된 공격성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종속변인을 질문지 공격성과 CRT 공격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모든 모형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애착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측정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조절곤란($r=.27, p<.01$) 및 공격성($r=.23, p<.01$)과 정적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1. 아버지 심리적통제	1							
2. 어머니 심리적통제	.34**	1						
3. 아버지-자녀 애착	-.51**	-.31**	1					
4. 어머니-자녀 애착	-.21*	-.65**	.58**	1				
5. 정서조절곤란	.27**	.32**	-.30**	-.40**	1			
6. 질문지 공격성	.23**	.23**	-.28**	-.17*	.41**	1		
7. CRT 공격성-강도	.14	.07	.02	-.05	.27**	.07	1	
8. CRT 공격성-시간	.15	.11	.02	-.04	.24*	.05	.90**	1
평균	20.83	22.43	91.51	100.25	74.90	30.34	109.29	108.89
표준편차	4.21	4.96	18.14	15.12	18.25	10.75	61.03	60.39

주. CRT 공격성-강도/시간 = CRT 과제로 측정된 공격성 중 소음의 강도/ 지속시간

주. * <.05, ** <.01

상관을 보였고, 아버지-자녀 애착은 정서조절 곤란(=-.30, $p<.01$) 및 공격성($r=-.28$, $p<.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때 아버지 변인과 공격성 간의 상관은 질문지로 측정된 공격성에서만 유의하였다. 한편, 정서조절곤란은 질

문지 공격성($r=.41$, $p<.01$), CRT 과제의 소음 강도($r=.27$, $p<.01$) 및 지속시간($r=.24$, $p<.05$)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CRT 과제의 두 측정치와 질문지 공격성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 변인과 어머니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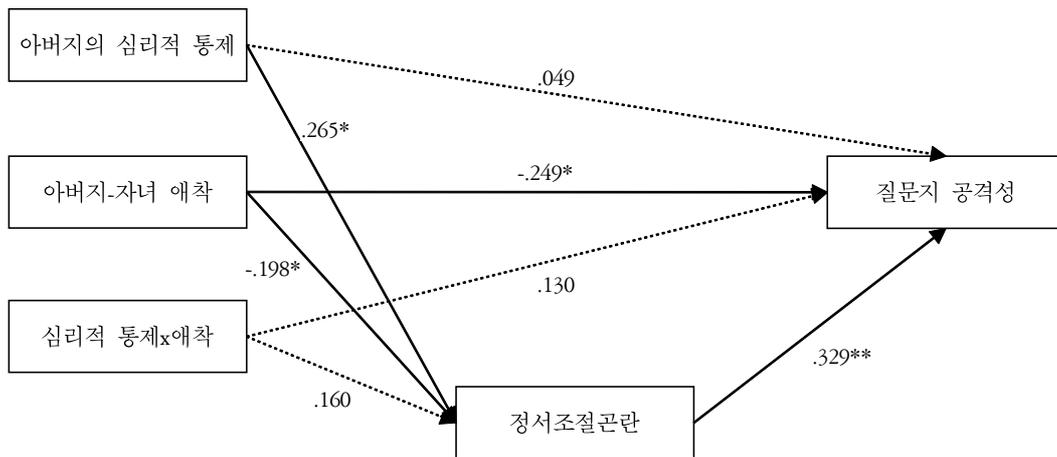


그림 2.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 및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질문지로 측정된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
* $p<.05$, ** $p<.0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r=.34, p<.01$), 아버지-자녀 애착과 어머니-자녀 애착 역시 정적 상관을 보였다($r=.58, p<.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CRT 과제의 강도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남자는 여자에 비해 CRT 과제 중 소음 강도를 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t=-2.24, p=0.026$). 이에 CRT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모든 분석에서 성별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여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아버지 요인과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질문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먼저 어머니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심리적 통제($\beta=.250, p=.016$), 애착($\beta=.228, p=.056$)],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265, p=.026$)와 아버지-자녀 애착($\beta=-.198, p=.047$)은 각각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eta=.160, p=.164$). 한편,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은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beta=.329, p=.000$)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각 아버지 변인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ootstrap 방법으로 아버지 변인이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이 [.013, .511]로 심리적 통제가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

다. 아버지-자녀 애착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95% 신뢰구간이 [-.097, -.001]로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049, p=.671$)와 아버지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beta=.130, p=.170$)가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 요인과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CRT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자녀 애착이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CRT 과제로 측정된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심리적 통제($\beta=-.090, p=.487$), 애착($\beta=-.012, p=.919$)], 아버지-자녀 애착($\beta=-.218, p=.029$)은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조절곤란을 예측하는 경로는 추세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232, p=.055$),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beta=.139, p=.234$). 한편,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CRT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였다($\beta=.230, p=.012$). 이에 bootstrap 방법으로 아버지-자녀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CRT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자녀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95% 신뢰구간이 [-.182, -.006]으로 애착이 CRT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beta=.284, p=.017$)와 아버지-자녀 애착($\beta=.265, p=.018$)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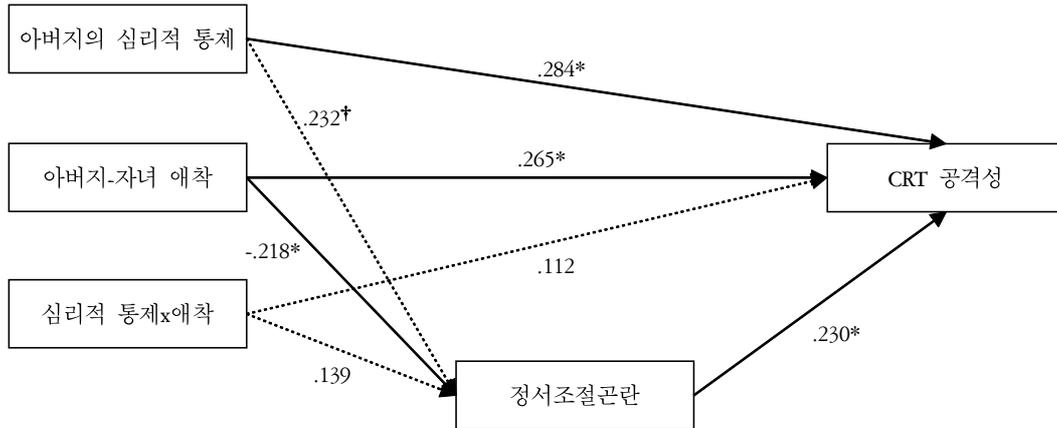


그림 3.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 및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이 CRT로 측정된 자녀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
 $\dagger < .10$, $* p < .05$, $** p < .0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CRT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는 자녀의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지 않았다($= .112$, $p = .258$).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및 아버지-자녀 애착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 과정이 자녀의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된 조절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가 심리적 통제를 높게 보일수록 자녀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버지-자녀 애착이 좋지 않을수록 자녀는 더 많은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다시 높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hang et al., 2003)와 일관되는 것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모의 영향이 결국 자녀의 내적 기제의 변화를 매개로 자녀의 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성인을 대상으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와 관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Chang et al., 2003; Woodhouse et al., 2009), 본 연구는 그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간주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지지되었던 바와 같이(Kenny & Sirin, 2006; Love & Murdock, 2012), 성인 자녀는 부모의 다양한 대상들과 관계를 맺음에 따라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아동·청소년에 비해 줄어드는 시기일 수는 있으나,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부

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부모 연구들이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극복하고(Goodman et al., 2011; Khaleque & Rohner,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아버지 고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중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공격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을 질문지 공격성과 CRT 공격성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질문지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심리적 통제와 애착 모두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CRT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관분석시 질문지 공격성과 CRT 공격성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공격성을 측정한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들이 흔히 있었다(Lengua, 2002). 이는 변인을 측정하는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CRT 공격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공격성을 행동적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반면 질문지에서는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으나 문항에 응답한 가해자는 드러날 수 있

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축소 보고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공격행동에 대해 회고적으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망각 또는 기억 왜곡과 같은 요인들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측정방법의 차이는 본 연구 결과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이 자녀의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Nelson, Hart, Yang, Olsen, & Jin., 2006; Buist et al., 2004)와 일관된 결과는 본 연구의 질문지 공격성에 한해서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아버지-자녀 애착,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공격성이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기에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회상 보고 과정에서의 왜곡 등의 이유로 변인 간 관계가 과장되었을 위험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문지로 측정한 아버지와의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CRT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비록 경향성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역시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CRT로 측정한 자녀의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최소한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가 질문지라는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CRT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을 때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지 않고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는 경로도 추가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격성의 측정방법에 따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포함된 질문지와 CRT는 단순히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과거 경험에 대해 지필 방식으로 보고하는 질문지 공격성과 달리, CRT 공격성은 승패가 실시간으로 피드백 되는 맥락에서 직접 행동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이 측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하고, 아버지 요인과 정서조절곤란이 각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공격성의 측정 방법에 관계없이 심리적 통제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을 예측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이해하고자 어머니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때에도 아버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자녀의 정서조절곤란과 공격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와 애착은 각각 독립적으로 자녀의 정서조절 및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부모 요인들을 연구에 함께 포함한 경우가 드물며,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더욱 그렇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아버지-자녀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들 외에도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아버지 변인들은 다양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반복연구는 물론, 다른 양육행동 차원들이 함께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자녀의 적응을 예측하는지에 대한 확장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CRT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매개된 조절모형에서 아버지-자녀 애착이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공격성을 예측하는 회귀계수는 예상한 방향으로 나온 반면, 이를 통제 한 후 애착과 공격성 간 직접 경로는 예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접경로에서 아버지-자녀 간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이라는 제 3의 변인으로 인한 억제 효과(suppression effect)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억제효과란 제 3의 변인인 억제변수(suppressor)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실제보다 증대시키는 것을 뜻하며(Conger, 1974), 매개모형에서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억제효과가 발생한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본 연구만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자녀 애착이 좋은 것이 자녀의 높은 공격성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 아버지-자녀 간 높은 애착이 아버지가 자녀의 부적응적인 행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거나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건강하지 못한 행동 양상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CRT 방법과 관련하여 결과 해석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 두 가지 CRT 측정치들은 각각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임에 따라 과제 수행 및 측정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CRT 방법을 활용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CRT 결과와 질문지

로 측정된 결과 간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Ferguson & Rueda, 2009). 만약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대로 CRT 과제와 질문지 간 낮은 수렴타당도가 CRT 과제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면 CRT 과제의 활용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문지 공격성과 CRT 공격성 간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CRT 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 개관 및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는 독립적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애착을 함께 고려하며, 이러한 아버지의 요인이 자녀의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내적 기제를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해 임상적으로는 성인 자녀의 공격성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시사점을 지닌다. 즉 공격성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높은 심리적 통제를 보이는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또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수단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 교육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와 맺게 되는 안정적인 애착 또는 긍정적인 관계 또한 자녀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버지-자녀 간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을 적용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기제 중 하나를 포함, 다양

한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개입 장면에서 구체적인 개입의 표적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부모 변인이 자녀의 공격성을 직접 예측하므로 자녀의 공격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나 부모-자녀 관계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녀의 내적 과정인 정서조절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증명된 바, 자녀의 정서조절을 표적으로 하여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개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を対象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임상 집단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이나 공격성은 모두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공격성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기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 간 공격성의 발달기제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도구가 자기보고식 질문지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참가자들이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바람직성에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격성을 질문지 외에도 컴퓨터 과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 질문지로 측정한 공격성과 실험적으로 측정한 공격성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공격성의 맥락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에 더 취약한 측정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측정하는 한편, 각

측정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격성은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아버지 변인들과 자녀의 정서조절이 각각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크기나 기제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지 않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서로 다른 아버지 변인들이 함께 분석에 포함되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효과를 빚어내는지, 나아가 그러한 상호작용효과가 자녀의 전반적인 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대하는데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변인 및 자녀의 정서조절이 개인의 전반적인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공격성 유형에 따라 발달기제가 상이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론적 근거에 따라 모형을 설정하였으나, 한 시점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전후관계 및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변화를 추적하고, 시간에 따른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Archer, J., & Coyne, S. M. (2005). An integrated review of indirect, relational, and soci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An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c.*, 9(3), 212-230.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9).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University of Washington.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ber, B. K. (2002). Reintroduc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3-13).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92.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ronte-Tinkew, J., Moore, K. A., & Carrano, J. (2006).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850-881.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4).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adolescent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Adolescence*, 27(3),

- 251-266.
- Bushman, B. J., & Anderson, C. A. (2001). Is it time to pull the plug on hostile versus instrumental aggression dichotomy? *Psychological Review*, 108(1), 273-279.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Bushman, B. J. & Saults, J. S. (2006). The Competitive Reaction Time (CRT) measure of laboratory aggression. [Online]. Available from <http://uk.groups.yahoo.com/group/CRTTRP>.
- Carnagey, N. L., & Anderson, C. A. (2005). The effects of reward and punishment in violent video games on aggressive affect, cognition, and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16(11), 882-889.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28-249.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onger, A. J. (1974). A revised definition for suppressor variables: A guide to their ide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35-46
- Cui, L., Morris, A. S., Criss, M. M., Houtberg, B. J., & Silk, J. S. (2014).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The role of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1), 47-6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umont, C., & Paquette, D. (2013). What about the child's tie to the father? A new insight into fathering, father-child attachment,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relationship theor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30-446.
- Eisenberg, N., & Spinrad, T. L. (2004). Emotion 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Fite, P. J., Colder, C. R., Lochman, J. E., & Wells, K. C. (2007). Pathways from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to substance use.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1(3), 355-364.
- Ferguson, C. J., & Rueda, S. M. (2009).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modified Taylor competitive reaction time test of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5(2), 121-137.
- Gallarín, M., & Alonso-Arbiol, I. (2012). Parenting practices,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veness in adolescence: A predictive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35(6), 1601-1610.
- Gilliom, M., Shaw, D. S., Beck, J. E., Schonberg, M. A., & Lukon, J. L. (2002). Anger regulation in disadvantaged preschool boys: Strategies, antecedents, and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222-235.

- Goodman, S. H., Rouse, M. H., Connell, A. M., Broth, M. R., Hall, C. M., & Heyward, D. (2011).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1), 1-27.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rolnick, W. S., & Gurland, S. T. (2002). Mothering: Retrospect and prospect. In J. P. McHale & W. S. Grolnick (Eds.), *Retrospect and prospect in the psychological study of families* (pp. 5-33). Routledge.
- Hecker, T., Hermenau, K., Isele, D., & Elbert, T. (2014).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A cross-sectional study of Tanzanian primary school ag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8*(5), 884-892.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120-1134.
- Kenny, M. E., & Sirin, S. R. (2006). Parental attachment, self-worth,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1), 61-71.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54-64.
- Kuppens, S., Grietens, H., Onghena, P., & Michiels, D. (2009).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control and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607-623.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 Lengua, L. J. (2002). The contribution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to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esponse to multiple risk. *Child Development, 73*(1), 144-161.
- Lewis, C., & Lamb, M. E. (2003). Fathers' influences on children's development: The evidence from two-parent famil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8*(2), 211-228.
- Lindsay, J. J., & Anderson, C. A. (2000). From antecedent conditions to violent actions: A general affective aggression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5), 533-547.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Love, K. M., & Murdock, T. B. (2012). Parental attachment, cognitive working models,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college

-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5(2), 117-129.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 J., Han, Y., Grogan-Kaylor, A., Delva, J., & Castillo, M. (2012). Corporal punishment and youth externalizing behavior in Santiago, Chile. *Child Abuse & Neglect*, 36(6), 481-490.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104.
- Manzeske, D. P., & Stright, A. D. (2009). Parenting styles and emotion regulation: The role of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control during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6(4), 223-229.
- Marsee, M. A., & Frick, P.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and emotional correlate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a sample of detaine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969-981.
- McCord, J. (1991). Family relationships, juvenile delinquency, and adult criminality. *Criminology*, 29(3), 397-417.
- McKenzie, M. D., & Casselman, R. B. (2015). Perceived father rejection and young adult aggression examining mediational componen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 Moilanen, K. L. (2007). The adolescent self-regulatory inventory: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of short-term and long-term self-regul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6), 835-848.
- Morales, J., & Crick, N. (1998).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Measure.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0). *Mplus user's guide (6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lson, D. A., Hart, C. H., Yang, C., Olsen, J. A., & Jin, S. (2006). Aversive parenting in china: Associations with chil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7(3), 554-572.
- Nelson, D. A., Yang, C., Coyne, S. M., Olsen, J. A., & Hart, C. H. (2013).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mensions: Connections with russian preschoolers'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8.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s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4), 193-219.
- Power, T. G., & Shanks, J. A. (1989). Parents as socializers: Maternal and paternal view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2), 203-220.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rinstein, M. J., Boergers, J., & Vernberg, E. M. (2001).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s: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obertson, T., Daffern, M., & Bucks, R. S. (2012).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 72-82.
- Ryan, R. M., & Grolnick, W. S. (1986). Origins and pawns in the classroom: Self-report and projective assessmen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percep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50-55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 (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2), 182-203.
- Sullivan, T. N., Helms, S. W., Kliever, W., & Goodman, K. L. (2010). Associations between sadness and anger regulation c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Development*, 19(1), 30-51.
- Taylor, S. P. (1967). Aggressive behavior and physiological arousal as a function of provocation and the tendency to inhibit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35(2), 297-310.
- Tremblay, R. E., Nagin, D. S., Sé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Pérusse, D., & Japel, C. (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114(1), e43-e50.
- Vitaro, F., Barker, E. D., Boivin, M., Brendgen, M., & Tremblay, R. E. (2006). Do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d harsh parenting differentially predi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5), 681-691.
- Waters, E., Merrick, S., Treboux, D., Crowell, J., & Albersheim, L. (2000).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early adulthood: A twenty-year

-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1(3), 684-689.
- Wood, W., Wong, F. Y., & Chachere, J. G. (1991).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viewers' aggression in unconstrained social interac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9(3), 371-838.
- Woodhouse, S. S., Dykas, M. J., & Cassidy, J. (2009). Perceptions of secure base provision within the famil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1(1), 47-67.
- Yen, C., Ko, C., Yen, J., Tang, T., Chang, Y., & Cheng, C. (2010).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 aggression perpetrators, victims, and perpetrator-victims. *Comprehensive Psychiatry*, 51(1), 42-48.
- 1차원고접수 : 2016.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8. 29.
최종게재결정 : 2016. 08. 30.

The Effects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Father-Child Attachment on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Hyunah Kim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ontribution of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father-child attachment, and their interaction to adult children's aggression with their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those processes. A total of 156 college studen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assessing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father-child attachment,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Additionally, the Competitive Reaction Time to yield a behavioral index of ag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father-child attachment each predicted aggression via their effects on emotion regulation, and the results remained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ther-child attachment. However, father-child attachment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father, psychological control, attachment,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